

보도시점 2024. 4. 29.(월) 14:00
(2024. 4. 30.(화) 조간)

배포 2024. 4. 29.(월) 09:00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정부, '24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총 7조 8,319억원 투자 -
- 과학문화 확산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 육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9일(월)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계부처 합동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21.2월)

- 비 전 :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 목 표 :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 추진전략 : ①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②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③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④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특히, 금번 '24년도 시행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감소 가시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구축, 글로벌 R&D 전략 등 현정부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부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하였다.

< 중점 추진과제변경(안) >



동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24년도에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또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한다.

※ '23년 285개 세부과제(32개 종료) → '24년 334개 세부과제 (81개 과제 추가)

※ (16개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법무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인사처,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대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SW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며, 영재학교, 과학고의 체계적인 AI·SW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분야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 ▶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맞춘 프로젝트형 AI·SW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 ▶ 인공지능 인재양성 학교 수 : ('23) 7개교 → ('24) 10개교

또한, 산업체 요구 및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학부생에게 지원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4년에는 대학원까지 확대한다.

- ▶ SW중심대학 투자 규모 : ('23) 1,000억원 → ('24) 1,102억원
-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24) 총 30억원, 120명 내외 선발·지원

< 전략 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

우수 신진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지원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BK 4단계 지원을 통해 핵심 학문 및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 연구장려금 지원 학생 수 : ('23) 569명(90억원) → ('24) 1,122명(163억원)
-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수 : ('23) 25명 → ('24) 50명(학사 25명, 석사 25명)
- ▶ 4단계 두뇌한국21 이공계분야 지원 대학원생 수(누적) : ('23) 69,007명 → ('24) 75,000명

또한,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 구축 및 신진 연구인력 유입·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G-램프 및 대학중점연구소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집단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차세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구거점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 ▶ G-램프(LAMP) 사업 투자 규모 : ('23) 153억원(8개 대학) → ('24) 512억원(6개 대학 추가)
- ▶ 대학중점연구소 투자 규모 : ('24) 948억원(155개)
- ▶ 집단연구지원 과제 수 : ('23) 547개 → ('24) 558개
-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연구센터(IRC) 확대 : ('23) 3개 → ('24) 7개

그리고,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등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 및 독립 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학문별 연구수요·연구자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개인기초연구지원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세계적 AI·SW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R&D 인재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 ▶ 이공학학술연구지원사업 국내외 연수 지원과제 수 : ('23) 971개 → ('24) 1,000개
- ▶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외 연수지원 수 : ('23) 194명 → ('24) 250명
- ▶ 개인기초연구 투자 규모 : ('23) 1조 6,367억원 → ('24) 1조 6,982억원
- ▶ SW스타랩 및 지원 학생수 : ('23) 39개(578명) → ('24) 49개(595명)
-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24년, 615억원), 산업혁신인재성장('24년 1,428억원), 에너지 전문인력육성('24년, 589억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24년, 413억원) 등

< 전략 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확충 >

SW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및 민간, 기업, 우수 대학을 통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디지털 전환 AI역량 교육 제공 및 백신개발, 재난·재해 임무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과 반도체 분야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 ▶ '42서울' 운영 및 '42경산(경북)' 본격화, 한국형 SW혁신 교육 모델 개발 시범 운영
- ▶ K-Digital Training : ('23) 36,580명(3,691억원) → ('24) 44,000명(4,732억원)
-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교육생 총 3,050명 지원
- ▶ 백신 전문가 양성(300명),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603명),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교육생 수(2,535명)

또한, 경력단절 여성연구자의 연구과제 지원 및 여성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24억원)하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

-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과제 지원 수 : ('24) 377개
- ▶ 여성벤처펀드 167억원 조성 및 창업보육실 238개 운영,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설
- ▶ 여성과학기술인 대체인력 지원 확대 : ('23) 115명 → ('24) 221명
- ▶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 ('23) 5,911개사 → ('24) 6,300개사

< 전략 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 강화, 사이언스 카드소지자 우대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석·박사급 해외 인력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 장기 지원(1년~3년) 유형 중심 운영, 표준협약서에 유치기관의 연구지원계획 등 책무성 포함
- ▶ 체류기간 상한 5년 → 고용계약기간으로 변경, 배우자 취업 범위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 등
- ▶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사업(86억원),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해외 선도대학 파견 교육(59억원),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20억원) 등

또한, 지·산·학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 재정지원 체계 구축 및 글로벌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 ▶ (RISE) 17개 시도 RISE 추진체계 구축 완료('24.6) 및 지역별 RISE계획('25~'29) 수립 예정('24.12.)
- ▶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15~20개교) 후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10개교 내외로 본 지정('24.7)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23) 11개교(대학 8, 대학원 3) → ('24) 15개교(대학 9, 대학원 6)

그리고,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및 전략적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인재정보도 구축한다.

※ 석박사 추적조사,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지도 구축, IRIS-고용 DB 연계분석 등

②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과학관육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24~'28)은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학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8년까지 추진할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강화 >

지역 전문 분야 중심의 국·공립 전문과학관*과 어린이 창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사이버과학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학문화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전문과학관 확충 계획: 현재 4개관 건립 추진 중이며, '28년까지 5개관 개관 예정

이와 더불어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권역별 대표과학관으로서 지역 내 공·사립과학관에 전시 공유, 콘텐츠 공동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전국 과학문화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자생역량을 키운다.

국제무대에서는 국제행사 참여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해외 주요 과학관들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전략 2: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과학관의 전시사업 수행체계를 중·장기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개선하고 민간 협업 활동을 촉진하여 자체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첨단기술 및 사회·환경변화 대응 콘텐츠 등 과학·인문·예술 융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19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의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 「과학관법」 개정안: (현행)등록제의 심사·등록·말소에 관한 사항만 규정→(개정)발굴·보존·관리, 현황조사 근거규정 신설

또한 전 연령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과학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하여 과학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과학 활동 및 가족·성인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전략 3: 과학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국 과학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거점, 공·사립과학관 등 전국 과학관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위의 과학관이 구심점-가교-협력·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관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관 통합 과학문화상품 개발, 전시콘텐츠 공유 및 전시기술 이전 등 협업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또한 과학관 전시기획, 자료 복원·보존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관 전문인력과 과학해설사 등 전시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 과학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대외 안보정세 불안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R&D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금번 회의에서 확정된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계획(안)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	책임자	팀 장	이정수 (044-202-6760)
		담당자	주무관	곽명환 (044-202-6763)
<1호>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혁신기반팀	책임자	팀 장	이정수 (044-202-6760)
		담당자	사무관	장남섭 (044-202-6762)
<2호>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4840)
		담당자	사무관	김서진 (044-202-4841)



□ 개 요

- (일시/장소) '24. 4. 29.(월) 13: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 (참석대상) 위원장(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민간위원장(이해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5명
- * 과기정통부(2), 교육부(1), 산업부(1), 고용부(1), 중기부(1) 실장급 공무원

□ 상정안건

연번	안건 및 주요내용	담당부서
1 (심의)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
2 (보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문화과)